임실군, 충북 영동군과 협력 강화

정영철 영동군수, 심민 임실군수 찾아 끈끈한 우애 다져… 고향사랑기부금도 기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치즈의 원조인 전북 임실군과 k-와인의 고장 충북 영동군이 끈끈한 우애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

임실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충북 영동군 정영철 군수는 지난 3일 심 민 임실군수를 찾아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함께 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 군수는 이날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남다른 임실 사랑을 보였다.

정 군수는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군에 방문해 보니, 치즈뿐만 아니라 옥정호와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멋진 관광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우리 군은 와인이, 임실군은 치즈가 유명한 만큼 서로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특히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릴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도 임실군이 꼭 함께하길 바란다"고 엑스포 개최 계획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심 군수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참여하고, 그 축제의 장에서 임실N치즈도 적극 홍보하겠다"며 "올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화답했다.

충북 영동군 정영철 군수는 지난 3일 심민 임실군수를 찾아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 강화와 활발한 문화교류를 함께 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상호 간의 신뢰와 우정을 재확인했다.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남다른 임실 사랑을 보였다.

심 군수는 9월 12일 개막하는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방문하는 한편, 영동군에 고향사랑기부도 할 예정이다. 임실군도 엑스포 축제장을 찾아 임실N치즈 판매 부스를 비롯하여 임실방문의 해, 고향사랑기부, SNS 구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날에는 영동군 군민자문단이 임실을 방문하여 '영동군 군민자문단 역량 강화 워크숍'도 개최했다.

심 민 군수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교류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며 "영동군의 뜻깊은 행사에 임실군도 함께 응원하고 협력하여 앞으로도 두 지역 간의 지속적인 우정과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폭염 대응 대책 강화

부서별 상황관리 체계 강화 · 다각도 안전관리 방안 추진

순창군은 최근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폭염 대응 대책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폭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부서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으로는 온열질환자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과 감시체계 운영, 농축산업 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과 안부 확인 전화 실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 대해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폭염 저감시설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그늘막과 얼음생수를 보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 1일부터 폭염특보 발령 시 관내 9개소 그늘막에 얼음생수를 지속 보급하고 있으며, 4개 도로에서 살수차를 운영해 도로 온도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 쉼터의 냉난방기 점검을 통해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장마 이후 찾아온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인해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주변 이웃들의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필봉농악, '춤추는 양상쇠' 상설 공연 개막

국가무형유산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주관하는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 공연이 지난 5일 임실 필봉문화촌 대동관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올해 공연은 필봉굿을 지켜왔던 故 양순용 상쇠의 30주기가 되는 해로서 그의 삶을 연희 창작극으로 풀어내어 '춤추는 양상쇠 "세사는 금삼척이요, 생애는 주일배라"'라는 주제로 7월 5일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필봉문화촌 대동관 및 산대마당에서 펼쳐진다.

춤추는 상쇠 공연은 2012년부터 14년 연속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 K판굿 놀이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특히, 2024년 지역브랜드 상설 공연 우수 공연으로 선정되어, 오는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제주 김정문화회관에서 초청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 필봉문화촌에 올해 말 한옥체험관 9동이 건립되면 공연뿐만 아니라 한옥 숙박 및 전통문화 체험 등 힐링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보존·계승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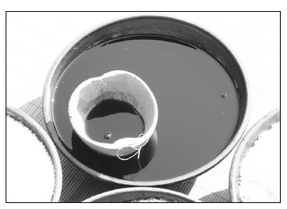
'간장' 항치매 · 혈당 개선 효과 입증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연구 결과 세계적 영양학 학술지 게재

순창군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최영일 순창군수)이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간장이 기억력 개선, 체수분 대사 유지, 혈당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는 세계적인 영양학 학술지인 뉴트리언츠(Nutrients) 게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사회에서 인지기능 저하와 대사질환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진흥원은 호서대학교 박선민 교수팀과 협력해 인지기능 저하 실험 쥐에게 일정 기간 간장을 섭취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쥐를 대상으로 간장 섭취 효과를 관찰한 결과, 연구팀은 간장을 섭취한 실험 쥐에서 기억력 개선, 체수분 균형 유지, 혈당 조절, 장 건강 증진 등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간장 섭취를 통해 뇌 신경세포 사멸이 감소해 항치매 효과가 확인됐으며, 항상성 관련 호르몬 시스템 조절을 통한 수분 대사 개선과 인슐린 민감도 개선으로 혈당 수치 안정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간장 섭취 후 장내 유익균인 유산균 비율이 증가해 장 건강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발효식품인 간장이 우리 건강에 다각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말라리아 모기매개감염병 예방 주의 당부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6월 20일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여름철 평균 기온 상승으로 모기 활동이 예년보다 빨라짐에 따라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형적인 증상은 오한, 발열, 발한 등 격일 간격인 48시간 주기로 반복되며 감기와 유사하여 증상 발현 후 말라리아 진단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지속될 경우 말라리아 감염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예방법은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방수칙으로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4월~10월 야간활동 자제 △야외활동 후 샤워 △밝은색의 긴 옷 착용 △고인물 등 모기 서식처 제거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권고 등을 준수하는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관할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남원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4월부터 7월 현재까지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위험성평가는 잠재적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발굴·분석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2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하반기 중 위험성 감소 대책을 적극 추진해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인화성 물질과 기계설비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해 사고위험을 크게 줄이고,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 안전교육과 위험성 인식 제고 활동도 강화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남원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년 상·하반기 시·군 세수규모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 등 9개 지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남원시는 올해 상반기 체납세일제정리추진단(단장 부시장)을 성실하게 운영한 것이 주효, 이 기간 읍면동 협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적극적인 부동산 공매,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등을 중점 실시하여 고질적 체납액을 줄이는데 매진했다.

특히 장기체납으로 20여년간 폐업중이던 남원효산콘도를 매각하는 결실을 보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시는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1,400만원을 확보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맞춤형 체납처분으로 납세자보호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으뜸' 등급을 받아 지방세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8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되었으며, 전년도 수상분을 포함해 누적 도비 수상금은 총 1,900만 원에 이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지방세 9개 항목의 징수실적과 체납 관리 수준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순창군은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감소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납세자 맞춤형 안내 강화, 부동산과 금융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전략을 적극 추진한 것이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